

취업기혼여성의 노동부담 및 대처방안

- 대구시 생산직기혼여성을 중심으로 -

The Work Load and Coping Strategies of the Married Female Production Workers in Taegu

대구대학교 소비자·가족학과

교수 趙熙今

고려대학교 가정교육학과

부교수 李蓮淑

Dept. of Consumer and Family Science, Taegu University

Prof. : Hee-Keum, Cho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Korea University

Associate Prof. : Yon-Suk, Lee

〈목 차〉

- | | |
|------------|-------------------|
| I. 문제제기 | IV. 연구결과의 해석 및 논의 |
| II. 이론적 배경 | V.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work loads and coping strategies of the married female production workers(MFPW). The data of 370 MFPW in manufacturing sector in Taegu are collected by using a questionnaire in August, 1995.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The results of objective work loads assessed time diary show that the average working hours is 14.25 hours during weekdays. The respondents spend 11.5 hours and 2.75 hours on doing paid and household work respectively. The shortage of physiological and leisure time due to spending excessively long time on work.

2) MFPW perceive the severe subjective work loads in the areas of personal, family, and social life. The perceived burden from paid work itself is relatively low due to the nature of their job.

3) The coping strategies MFPW actually adopted are limited mostly to those from an individual domain, such as shortening the time for sleep, leisure or household labor.

I. 문제제기

급속하게 증가하는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에도 불구하고 가장경제적인 성별분업 의식은 변화하지 않아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늘어난 만큼 남편의 가사노동 참여는 증가하지 않고 있다(Adams, 1980). 거기에서 이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기업이나 사회의 제도 및 시설 등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취업한 기혼여성들은 가정과 직장, 사회에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 즉, 기혼여성 취업에 대한 개인, 가계, 사회의 요구가 늘어나면서 기혼여성의 취업률은 크게 증가했으나, 이들의 취업에 따른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가정 내·외의 조건은 변화하지 않고 있으므로, 취업한 기혼여성들은 노동시장 참여와 가사노동의 전담으로 부터 갈등과 부담을 갖게 되는 것이다.

취업한 기혼여성이 겪는 일/가정의 갈등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 그런데 취업한 기혼여성의 역할갈등을 다룬 선행연구들에서는 주로 가정내의 역할인 주부, 어머니, 부인으로서의 역할갈등만을 다루거나(임정빈 외, 1986; 전영자, 1992), 갈등의 형태로 시간갈등 및 긴장갈등만을 다루고 있다(Kelly & Voydanoff, 1985; 한경미, 1991; 이기영·구혜령, 1992). 또 특정한 갈등의 형태나 영역을 구분하지 않고 역할갈등을 단지 일과 가정사이의 역할과중이나 역할양립 불가능, 역할방해 등으로만 보는 연구들(Voydanoff, 1988; Weigel, Weigel, Berger & DelCampo, 1995)이 있다. 이런경우 취업기혼여성들이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에서 어떤 갈등이나 부담을 느끼는지 파악할 수 없다.

그러므로 취업한 기혼여성들은 일상생활에서 어느 정도의 부담을 감당하고 있으며, 또 그들의 생활영역 가운데 어떤 영역에서 특히 부담을 느끼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취업한 기혼여성이 수행하는 이중역할과 그들이 느끼는 역할갈등의 해소를 위한 대처방안에 대한 연구도, 취업기혼여성이 개인적으로 또는 가정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대처방안만을 제시하고 있거나, 국가나 기업이 기혼여성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해 마련해야 하는 정책으로 탁아시설 지원이나 모성보호제도 등 사회적인 대처방안만을 제시하고 있다(신영수, 1991; 어수봉, 1991, 1992, 1993; 정진화, 1991; 김순영, 1992; 김태홍, 1993). 그러나 취업기혼여성들의 과중한 노동부담이나 역할갈등에 대한 대처방안의 문제는 개인이나 가정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대안만을 다루거나, 구체적인 실태 파악 없이 가정 대 사회의 관계에서 거시적인 정책을 제시하는 것으로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

취업한 기혼여성이 겪는 어려움과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통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개인적으로 또는 가정과 직장에서, 그리고 사회생활에서 겪는 부담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아울러 이러한 노동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대처방안을 개인, 가정, 사회적인 측면에서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이와같은 분석은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배경을 생태체계적 접근방법으로 파악한 연구(조희금 외, 1998)에 근거하는 것으로, 이런 생태체계적 접근은 기혼여성의 취업에서 오는 갈등이나 부담 역시 개인과 그를 둘러싼 환경의 측면에서 파악할 수 있고 또한 갈등이나 부담의 해소를 위한 대처방안도 개인과 개인을 둘러싼 환경인 가정 및 사회적인 것으로 나누어서 살펴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가계의 생존을 위한 필요에서 취업하지 않을 수 없는 저소득층 가정의 취업기혼여성은 소득의 증대를 위해 노동시간을 최대한 증가시켜야 하지만, 가정내에서는 취업한 기혼여성의 가사노동을 분담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인적, 물적인 뒷받침이 충분하지 않으므로 과중한 노동부담을 가지고 있음을 쉽게 짐

작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취업기혼여성 가운데 특히 장시간 노동과 열악한 근무조건으로 노동부담을 더 많이 느끼고 있는(유가효, 1991; 1992, 조희금, 1993) 생산직기혼여성을 중심으로 그 실태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취업기혼여성들이 겪는 노동부담 실태는 어떠한가를 파악한다. 노동부담 정도는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척도를 통해 분석하고, 노동부담이 어떤 변수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지 살펴본다.

둘째, 이들이 노동부담에 대처하기 위해 사용하는 대처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어느정도 사용하고 있는지 그 실태를 파악한다.

셋째, 노동부담과 대처방안 사이의 관계를 파악한다.

II. 이론적 배경

1. 노동부담

취업한 기혼여성들이 겪게되는 노동부담에 대한 관심은 주로 직장가 가정에서의 이중역할 수행이나, 두 역할사이의 긴장 혹은 갈등, 또는 스트레스라는 개념으로 연구되어 왔다.

취업기혼여성들이 겪는 역할긴장(role strain)이나 역할갈등(role conflict)은 개념상의 큰 구분없이 사용되고 있으나, 역할긴장은 가정이나 직장에서 느끼는 박탈의 느낌으로(Keith & Schafer, 1980), 또는 가족역할 긴장을 가족역할 수행의 어려움으로 설명하고 있다(Katz & Piotrkowski, 1983). 역할갈등은 한 역할의 수행이 다른 역할의 수행을 더욱 어렵게 만들도록 둘 이상의 압박이 동시에 발생하는 것으로 정의된다(Kahn 등, 1964). 또 노동시간 등 객관적인 측면에 대한 것은 역할책임으로, 시간압박에 대한 느낌 등 좀더 주관적인 측면에 관한 것은 역할부담으로 나누기도 한다(Verbrugge, 1987).

여기서 노동부담이란 위에서 언급한 역할갈등의 의미뿐만 아니라, 거기에 시장노동 참여와 가사노동

의 전담에서 오는 신체적·정신적인 짐스러움을 통합하여 노동부담의 주관적 측면과 객관적 측면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어야 한다.

1) 객관적 노동부담

객관적 노동부담은 노동조건이나 하루의 생활시간 구조를 분석하므로써 파악할 수 있다. 생활시간 구조 분석을 통해 노동시간과 여가시간, 즉 노동력의 소비시간과 노동력을 재생산할 수 있는 시간의 비율을 측정하여 노동력을 재생산하기 위한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지 분석한다. 이때 이들의 노동시간에는 당연히 수입을 벌기위한 노동시간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의 가사노동시간도 포함된다.

2) 주관적 노동부담

주관적 노동부담은 직장노동과 가사노동이라는 이중노동을 하면서 개인생활 및 개인을 둘러싼 가정과 직장, 그리고 사회생활에서 겪게되는 어려움을 말한다. 여기서 각 생활영역의 부담이란 직장 및 가정생활의 한 영역에서 경험하는 부담이 서로 다른 영역에서 경험하는 부담으로 전이(spillover)되는 것을 의미한다(Bolger et al., 1989).

(1) 개인생활 부담

개인생활 부담은 수면시간이나 자신을 위한 시간, 또 교제 등의 여유있는 시간이 없어서 느끼는 부담감과, 항상 해야 할 일이 많은 것에 대한 부담감을 의미한다. 이는 취업기혼여성의 생활시간 구조가 일반 전업주부나 남성의 생활시간 구조와 비교해 볼 때 여가시간이나 수면시간을 포함한 생리적인 시간이 상대적으로 현저하게 짧은 것에서 잘 나타난다(천현숙, 1987; 이승미, 1989; 한경미, 1991; 유가효 외, 1991; 조희금, 1993).

(2) 가정생활 부담

자신이 직장에 다니기 때문에 자녀나 남편의 뒷바라지에 소홀하거나 식사준비·청소·빨래 등 가사노동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부담이 가정생활 부담이다. 가정생활부담은 저소득층의 취업한 기혼여성들이 취업노동과 함께 가사노동을 하는데 큰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고 한 연구들(김애령, 1987; 김혜경 외, 1990; 김시월, 1993)이나, 전문직 주부도 가장

갈등을 크게 느끼는 영역이 부모역할 갈등(전영자, 1992)이라고 한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취업한 기혼여성들은 직장노동으로 인해 가정생활 영역에서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다.

(3) 직장생활 부담

자녀나 집안일때문에 직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취업기혼여성의 직장생활은 가정생활에 의해 방해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Bolger 등(1989)은 맞벌이 부부가 겪는 직장과 가정사이의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에서 일반적인 생각과는 달리, 남성의 경우 가정에서의 부담이 직장생활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여성의 경우에는 가정의 부담이 직장생활에 영향을 주기 보다는 직장에서의 어려움이 가정생활에 부담을 주는 전이가 일어난다고 밝히고 있다. 또 Bielby 등(1988)도 가정책임 등의 조건을 동일하게 했을 때, 오히려 남성 보다 여성이 직업노동에 더 많은 노력을 배분한다고 하였다.

(4) 사회생활 부담

사회생활부담은 직장생활로 인해 사회활동에 지장을 받는다고 느끼는 부담감을 말한다. 이러한 부담은 특히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는 주간근무 종사자가 많이 느끼는 것으로, 이에 대한 직장이나 사회의 제도적인 차원의 배려가 필요한 영역이다. 사회생활 부담은 취업기혼여성들의 결근 이유 가운데서 관공서나 은행일 때문이라는 응답이 상당수 나타난(유가효 외, 1991) 연구결과에서도 짐작할 수 있다.

3) 노동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역할갈등이나 노동부담은 개인 및 가정관련 변수들과 직장관련 변수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가정관련 변수들 가운데는 자녀수와 연령, 부모역할에 대한 중요성 인지 등이 영향을 미치며, 직장관련 변수 중에서는 자신 및 배우자의 주당 노동시간, 자율성이 없는 일의 특성, 직업에 대한 압력 등이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Keith와 Schafer, 1980; Katz와 Piotrkowski, 1983; Bird와 Ford, 1985; Voydanoff, 1988). Voydanoff와 Kelly(1984), Kelly와 Voydanoff(1985)는 역할긴장은 개인 특성과 가족관련 및 직업

관련 변수들 가운데 직업관련 변수에 의해 가장 영향을 크게 받는다고 하였다. 또 직업노동시간이 길고 생계유지를 위해 취업했거나, 근무시간에 융통성이 없는 경우 취업주부는 시간갈등을 느끼며(한경미, 1991), 가족생활주기가 역할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장운옥, 1992).

2. 대처방안

기혼여성의 취업은 직업역할과 전통적인 가정내 역할 사이에서 갈등과 스트레스를 일으키게 되고, 취업기혼여성은 이러한 갈등과 스트레스를 줄이는 대처전략을 개발하게 된다.

취업한 기혼여성의 이중노동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은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어 가족복지나 여성복지라는 차원에서 논의된다. 특히 국가가 가족이나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큰 현대사회에서, 국가의 가족 또는 여성에 대한 정책은 취업기혼여성의 이중노동부담 해소와도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5년 세계화추진 위원회가 발표한 여성사회참여확대를 위한 10대 과제(조은, 1996)는 취업기혼여성의 이중노동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국가차원의 노력을 보여준 좋은 예라고 하겠다.

이상에서 볼 때 취업한 기혼여성이 그들이 겪는 이중노동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대처방안은 그들이 부담을 느끼는 영역과 관련지어 취업기혼여성 개인과 그들의 가정, 그리고 직장과 지역사회를 포함한 사회적 차원의 대처방안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다.

1) 개인차원의 대처방안

취업으로 인해 시간갈등을 겪고 있는 기혼여성들은 개인적 차원에서 생활시간 배분을 조정하여 수면 시간이나 여가시간을 줄임으로써 이에 대처하는 방안을 가장 흔하게 사용하고 있다. 또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주관적인 지각을 바꾸거나 개인적인 역할을 재정의하여 일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므로써 대처하기도 한다(Hall, 1972; Bird, Bird & Scruggs, 1983;

Elman & Gilbert, 1984; Chung, 1988; 전영자, 1992; 이기영과 구혜령, 1992). 즉, '목표 설정하기', '우선 순위 정하기', '계획하기', '조직하기' 등과, 정서적인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인지적 재구조화방안을 사용하는 것 등이 여기에 속한다.

2) 가정차원의 대처방안

가정차원의 대처방안은 가사노동을 가능하면 줄이거나 그 질적인 수준을 낮추는 것이다(이승미, 1989; 이연숙 외, 1991). 가정차원 대처방안은 크게 정서적 지원과 물질 지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정서적 지원은 가족원의 지지 및 도움을 말하며, 가족원의 가사노동 부담은 취업한 기혼여성이 이중노동부담에 대처할 수 있는 중요한 대처방안의 하나이다(Strober & Weinberg, 1980). 특히 가족원 가운데 남편의 가사분담은 가장 중요한 지원처이나 남편의 가사노동 부담정도는 부인의 취업에도 불구하고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Abdel-Ghany & Nickols, 1983; 유가효 외, 1991, 1992; 이기영외, 1994).

물질 지원은 가사노동을 돕는 가정기기의 사용, 간편식품의 구입 및 외식하기 등 가사노동의 사회화를 의미한다(Strober & Weinberg, 1980; Nickols & Fox, 1983; 이승미, 1989; 이연숙외, 1991; 전영자, 1992; 제미경, 1994; 임혜경, 1993).

3) 사회차원의 대처방안

기혼여성의 취업이 이미 보편적인 사회현상으로 인식되는 현재의 상황에서, 취업기혼여성들이 겪는 직업과 가정간의 갈등, 이중노동의 부담이 이제 더 이상 기혼여성 개인의 문제나 또는 맞벌이 부부 가정만의 문제로 미루어 둘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는 점에 많은 연구자들이 동의한다(Googins, 1991; 조형, 1991; 강세영, 1995). 즉 지금까지 여성 개인이나 가정에만 맡겨져 있던 취업기혼여성의 문제를 이제는 직장이나 지역사회, 국가에서 그들의 이중노동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만 하는 것이다.

취업기혼여성들이 일과 가정사이에서 겪는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은 기업이 지원하는 가족에 관련된 급부제도나 정책들로, 기업에서는 기업의 규모와 기혼여성의 비율이 이러한 제도를 마련하는데 가장 영향을 크게 미치는 변수라는 연구결과가 있다(Seyler, Monroe & Garand, 1995). 또 취업한 기혼여성이 직장이나 사회에 대해서 원하는 요구는 근로자에게 좀 더 도움이 되는 작업환경이나 의료정보(Nickols 등, 1995) 등이었다.

Ⅲ. 연구방법¹⁾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대구지역의 제조업에 종사하는 생산직 기혼여성으로, 총 445부를 배부하여 392부가 회수되었고(회수율 88%), 그 가운데 부실 기재된 22부를 제외한 370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자료수집은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설문지를 수정한 후 1995년 8월 5일 부터 8월 14일에 걸쳐 본조사를 하였다. 본조사는 먼저 연구자가 대상 노동조합의 임원들에게 조사의 취지 및 기입방법을 자세히 설명한 후, 다시 임원들이 대상자에게 기입방법을 예를 들어 설명하고, 대상자들이 설문지에 직접 기입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조사내용은 조사대상자의 개인, 가정 및 직장생활에 관한 문항들과, 객관적 노동부담을 측정하기 위한 생활시간조사표, 그리고 주관적 노동부담의 정도와 대처방안을 측정하기 위한 설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관적 노동부담 척도는 선행연구를 참고로 개인, 가정, 직장, 사회생활영역에서 느끼는 부담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23개 문항을 작성하여, 조사한 후 요인분석을 통해 영역별 부담을 분석하였다. 각 문항은 '정말 그렇다'(5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의 5점 리커트형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담이 큰 것을 말한다. 대처방안 척도 가운데 개인 및 가정차원 척도는 '전혀 그런적이 없다'(1점)에서 '항상 그렇게 한다'(5점)의 5점척도로 구성되어 있어서 점수

1) 연구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첫 번째 필자의 박사학위논문을 참조할 것.

가 높을수록 해당 대처방안을 많이 사용하는 것이다. 직장 및 사회차원의 척도는 직장이나 사회가 제공하는 시설 및 제도의 이용에 대해 '거의 이용 안 한다'(1점)에서 '자주 이용한다'(4점)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러한 제도나 시설이 없는 경우는 0점으로 하였다. 개인차원의 대처방안에는 '효율적 수행'과 '소극적 대처'로, 가정차원의 대처방안은 '남편의 가사

분담'과 '가정내 물적자원 이용'이 있으며, 직장 및 사회차원의 대처방안은 '모성보호 제도의 이용', '탁아시설 이용', '금융제도의 이용' 등으로 나누어 졌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사항은 다음의 <표 1>와 같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N=370)

| 변수 | 항목 | 빈도(%) | 변수 | 항목 | 빈도(%) |
|------------|------------------|-----------|----------------------|-----------|-----------|
| 본인 연령 | -29세 | 25(7.1) | 본인의 소득 | 35- 50만원 | 80(22.6) |
| | 30-39세 | 93(26.6) | | 51- 60만원 | 114(32.2) |
| | 40-49세 | 180(51.4) | | 61- 70만원 | 92(26.0) |
| | 50-59세 | 52(14.9) | | 71-150만원 | 68(19.2) |
| 평 균 | 42.3세 | | 평 균 | 63.4만원 | |
| 자녀의 지지도 | 적극 찬성 | 18(5.2) | 남편의 지지도 | 적극 찬성 | 18(5.3) |
| | 찬성 | 46(13.3) | | 찬성 | 105(30.8) |
| | 보통 | 139(40.1) | | 보통 | 157(46.0) |
| | 반대 | 116(33.4) | | 반대 | 56(16.4) |
| | 적극 반대 | 128(8.1) | | 적극 반대 | 5(1.5) |
| 취업목적 | 생활비 마련 | 141(38.2) | 가계소득 | 40-100만원 | 64(19.0) |
| | 집마련 | 67(18.2) | | 101-150만원 | 100(29.7) |
| | 자녀교육비 | 92(24.9) | | 151-200만원 | 130(38.6) |
| | 빛을 갠기위해 일하는 게 당연 | 5(1.4) | | 201-500만원 | 43(12.8) |
| | 시간을 활용 | 30(8.1) | 평 균 | 163.4만원 | |
| | 그냥 좋아서 | 19(5.1) | 잔업여부 | 했다 | 247(67.9) |
| | 기타(노후대책) | 10(2.7) | | 안했다 | 117(31.6) |
| 평균 1일 근무시간 | - 8시간 | 196(53.3) | 작업환경 (실내온도·조명·환기) | 아주나쁘다 | 53(14.5) |
| | 8-10시간 | 51(13.8) | | 나쁘다 | 111(30.3) |
| | 10-12시간 | 106(28.8) | | 보통이다 | 148(40.4) |
| | 12시간 이상 | 17(4.1) | | 좋다 | 44(12.0) |
| | 평 균 | 9시간 48분 | | | 매우 좋다 |
| | | | 근무형태 | 주간 근무 | 288(77.8) |
| | | | | 1일 2교대 | 12(3.2) |
| | | | | 1일 3교대 | 55(14.9) |
| | | | | 기타 | 15(4.1) |

* 무응답의 처리로 변수별 빈도에 차이가 있음

IV. 연구결과의 해석 및 논의

1. 취업기혼여성의 노동부담 실태

생산직 기혼여성의 노동부담을 객관적 측면과 주관적 측면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1) 객관적 노동부담

조사대상 생산직 기혼여성의 1일 생활시간 구조를 보면 다음의 <표 2>와 같다. <표 2>에서 보면 생산직 기혼여성의 평일 생활시간 구조는 긴 노동시간으로 생리적 시간이나 여가시간 등이 매우 짧아진 것을 볼 수 있다.

평일 생리적 시간은 6시간 54분의 수면시간을 포함하여 8시간 27분에 불과하며, 노동시간은 가사노동 시간 2시간 46분, 직업노동시간 11시간 29분을 합하여 14시간 15분의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노동시간으로 1일 여가시간은 1시간 12분에 지나지 않는다. 노동력을 재생산할 수 있는 시간이 생리적 시간과 여가시간을 합하여 9시간 39분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의 심각한 노동부담을 알 수 있다. 휴일은 직업노동시간이 36분으로 감소하기 때문에 생리적시간과 여가시간 그리고 가사노동시간이 증가하고 있다.

2) 주관적 노동부담

생산직 기혼여성의 주관적 노동부담은 다음의 <표 3>과 같다. <표 3>에서 보면, 생산직 기혼여성의 개인생활부담은 평균 3.87로 나타나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다. 개인생활 부담은 수면시간이나 자신을 위한 시간, 또 교제 등의 여유있는 시간이 없어서 느끼는 부담감과, 항상 해야 할 일이 많은 것에 대한 부담감을 의미한다. 이는 생활시간 구조에서 나타난 것처럼 수면시간과 여가시간이 크게 부족한 것에서 온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자신이 직장에 다니기 때문에 자녀나 남편의 뒷바라지에 소홀하거나 식사준비·청소·빨래 등 가사노동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부담인 가정생활 부담은 평균 3.67로 보통 이상의 부담을 느끼고 있

<표 2> 생산직 기혼여성의 1일 생활시간구조(1995년)

(시간 : 분)

| 생활 | 내용 | 평일 | 휴일 |
|--------|-----------|-------|-------|
| 생리적시간 | 수면 | 6:54 | 8:53 |
| | 식사 | 45 | 1:33 |
| | 신변잡일 | 25 | 24 |
| | 휴식 | 23 | 53 |
| | 소 계 | 8:27 | 11:43 |
| 가사노동시간 | 식생활관리 | 1:26 | 1:57 |
| | 의생활관리 | 24 | 1:14 |
| | 주생활관리 | 25 | 1:05 |
| | 가족돌보기 | 13 | 26 |
| | 시장보기·관리 | 13 | 35 |
| | 시택방문 등 행사 | 5 | 36 |
| 소 계 | 2:46 | 5:53 | |
| 직업노동시간 | 작업시간 | 9:00 | 31 |
| | 통근시간 | 1:35 | 4 |
| | 휴식·식사 | 54 | 1 |
| | 소 계 | 11:29 | 36 |
| 여가시간 | TV, 라디오 | 49 | 2:55 |
| | 취미·오락·운동 | 2 | 20 |
| | 가족담소 | 16 | 54 |
| | 모임·교제 | 0 | 39 |
| | 종교활동 | 1 | 27 |
| | 독서 등 | 4 | 9 |
| | 소 계 | 1:12 | 5:24 |
| 기 타 | 6 | 24 | |
| 계 | 24:00 | 24:00 | |

<표 3> 생산직 기혼여성이 느끼는 영역별 노동부담 정도

(N=370)

| 주관적인 노동부담 | 평균* | 표준편차 |
|-----------|------|-------|
| 개인생활 부담 | 3.87 | .770 |
| 가정생활 부담 | 3.67 | .784 |
| 직장생활 부담 | 2.51 | .830 |
| 사회생활 부담 | 3.71 | 1.186 |

* 1-5점 리커트 척도의 평균점수임. 점수가 높을수록 부담이 크다.

다.

자녀를 돌보거나 집안일을 하는 것 때문에 직장생활을 하는데 겪는 어려움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생산직 기혼여성들이 직장생활영역에서 느끼는 부담은 평균 2.51로 나타났다. 즉, 이들이 직장일을 하기 때문에 개인이나 가정생활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것과 비교할 때 자녀나 집안일의 영향 때문에 직장생활에서 느끼는 부담은 적음을 나타낸다. 생산직에 종사하는 기혼여성은 일의 특성상 노동의 강도나 속도 등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기 보다는 주로 정해진 단순 반복적인 일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개인이나 가정적인 이유가 직업노동에 영향을 주는 정도는 약하다고 하겠다. 또 급료가 일급형태로 지불되어 지각·조퇴나 결근은 상당한 불이익을 가져오게 되므로(김혜경 외, 1990; 유가효 외, 1991), 직장생활은 우선적으로 배려되어야 하는 것이다.

사회생활부담은 특히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는 주간근무 종사자에 대한 직장이나 사회의 제도적인 차원의 배려가 필요한 영역이다. 생산직 기혼여성들은 관공서나 은행, 병원 일 보기, 담임선생님 찾아보기 등 직장일과 집안일을 사회적인 제도 속에서 처리해야 하는 것에 대해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었다(평균 3.71).

이상에서 생산직 기혼여성들이 느끼는 주관적 노동부담은 개인생활 영역, 사회생활 영역, 가정생활영역, 직장생활 영역의 순으로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노동부담에 영향을 주는 변수

1) 노동시간에 영향을 주는 변수

객관적 노동부담을 나타내는 직업노동시간 및 가사노동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수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보기 위하여 개인 및 가정관련 변수, 직업관련 변수를 독립변수로 투입하여 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가 <표 4>에 나타나 있다.

개인 및 가정관련 변수와 직업관련 변수를 함께 고려하면, 직업노동시간은 6개의 변수를 통해 29.4%가 설명되고 있다. 다른 변수를 통제 했을 때 직업

노동시간에 가장 영향을 크게 미치는 변수는 잔업여부이며, 연령, 본인소득, 취업목적 등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잔업을 하는 사람은 하지 않는 사람에 비해 1일 80분의 노동을 더 하고 있다. 또 취업목적에 따라 노동시간에 차이가 있어서, 가계의 요구로 취업하기 보다 개인적인 선택에 의해 취업했을 때 직업노동시간이 짧았다.

이는 취업기혼여성의 직업노동시간이 취업동기에 의해 차이가 있어서 경제적인 동기에서 취업했을 때 직업노동시간이 길다는 한경미(1991)의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또 연령이 적고 본인의 소득이 높을수록 노동시간이 길었다. 즉 연령이 적고 가계의 필요에 의해 취업하여 잔업을 하는 경우 직업노동시간은 길어지고 본인의 소득은 증가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가사노동시간은 직업노동시간에 비해 변수들에 의한 설명력이 낮았는데, 직업관련 변수 가운데 가장 영향력이 큰 변수는 근무형태였다. 주간근무를 하지 않는 기혼여성이 주간근무를 하는 경우 보다 1일 79분 가량가사노동을 더 하고 있었다. 이런 결과는 가

<표 4> 노동시간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에 대한 중회귀분석

| 변 수 | 직업노동시간 b(β) | 가사노동시간 b(β) |
|----------------|-----------------|----------------|
| 연 령 | -2.80***(-.20) | -.82 (-.05) |
| 본인소득 | 2.00***(.28) | -1.83***(-.25) |
| 가계소득 | -.14 (-.08) | .11 (.06) |
| 취업목적 #1 | -29.61* (-.11) | 6.05 (.02) |
| 근무형태 #2 | -29.21 (-.11) | 79.32***(.29) |
| 잔업여부 #3 | -80.71***(-.31) | 17.99 (.08) |
| 상 수 향 | 607.05*** | 277.37*** |
| F 값 | 17.95*** | 7.59*** |
| R ² | .294 | .150 |

* P<.05 ** P<.01 *** P<.001

#1 취업목적 가변수 (가계의 필요=0)

#2 근무형태 가변수 (주간근무=0)

#3 잔업여부 가변수 (잔업한다=0)

사노동시간을 결정하는 가장 영향력있는 변수로 취업여부 혹은 직업관련 변수를 제시하고 있는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일치하고 있다(Shelton, 1988; 한경미, 1991; 조희금, 1993). 가정관련변수 중에서는 본인의 소득이 영향력이 커서, 본인소득이 증가할수록 직업노동시간은 길고, 가사노동시간은 짧았다.

2) 주관적 노동부담에 영향을 주는 변수

주관적 노동부담정도에 미치는 개인 및 가정관련 변수와 직업관련 변수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보기 위한 중회귀분석의 결과가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표 5>에서 보면, 개인생활부담은 모든 독립변수를 고려했을 때 직업관련 변수 중 취업목적과 근무시간만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계의 필요 때문에 취업하여 근무시간이 길수록 개인생활영역에서 부담을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생활부담은 가계소득, 취업목적과 근무시간이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즉, 가계소득이 낮고 가계의 경제적인 이유로 취업하여 근무시간이 긴 기혼여성들은 가정일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었다. 이는 도시 빈곤층의 기혼여성 근로자가 가장 어려운 문제로 지적한 것이 가사노동시간의 부족(김시월, 1993)이라든가, 또는 이들의 절대적으로 부족한 가사노동시간(<표 2>참조)에서도 짐작할 수 있다. 다른 직종에 비해 생산직 기혼여성의 가정내 가정기구나 서비스의 상품화 정도가 낮고(이기영, 1987; 이승미, 1988; 제미경, 1994), 남편의 가사분담도 낮다는(이미숙, 1995) 선행연구 결과를 고려해 볼 때, 이러한 부담은 더욱 가중되리라고 짐작된다.

한편, 자녀나 집안일 때문에 직장생활에 영향을 주는 직장생활부담은 개인 및 가정관련 변수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고 있다. 즉, 본인의 연령이 어릴수록, 남편이나 자녀가 취업을 반대할 수록 부담을 가지고 있었다. 본인의 연령이 어리다는 것은 자녀의 연령이 어린 것을 의미하므로 직장생활에서의 부담은 어린자녀가 있는 경우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으로 보인다.

취업목적, 근무형태, 근무시간 등은 사회생활부담에 독립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즉, 가계적인 필

<표 5> 노동부담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에 대한 중회귀분석

(계수는 β 값임)

| 변 수 | 개인생활부담 | 가정생활부담 | 직장생활부담 | 사회생활부담 | 전체노동부담 |
|----------------|--------|--------|---------|---------|---------|
| 연 령 | .11 | .10 | -.25*** | -.07 | -.01 |
| 본인소득 | .05 | .07 | .04 | -.08 | .03 |
| 가계소득 | -.08 | -.20** | -.03 | -.09 | -.15* |
| 가족의지지도 | -.12 | -.05 | -.14* | -.08 | -.12* |
| 취업목적 #1 | -.21** | -.16* | -.09 | -.20*** | -.23*** |
| 근무형태 #2 | .00 | -.06 | .06 | -.36*** | -.14* |
| 잔업여부 #3 | -.10 | .04 | .00 | -.07 | -.04 |
| 작업환경 | .07 | .03 | -.06 | .01 | .03 |
| 근무시간 | .22** | .17* | .03 | .19** | .22** |
| 상 수 항 | 13.5 | 19.1 | 17.0 | 18.0 | 13.5 |
| F | 6.2*** | 3.9*** | 2.8** | 13.6*** | 6.2*** |
| R ² | .20 | .14 | .11 | .36 | .23 |

* P<.05 ** P<.01 *** P<.001

#1 취업목적 가변수(가계의 필요=0) #2 근무형태 가변수(주간근무=0)

#3 잔업여부 가변수 (잔업한다=0)

요에 의해 취업하고 주간근무를 하며, 근무시간이 긴 경우에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서의 부담을 가장 크게 느끼고 있었다. 이 가운데 가장 영향력이 큰 변수는 근무형태로,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일해야하는 주간근무가 기혼여성들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부담을 크게 주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전반적으로 생산직 기혼여성이 느끼는 노동부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취업목적과 근무시간의 길이로 나타났다. 즉 가계의 필요 때문에 취업하고 있으며, 근무시간이 긴 경우에 개인, 가정 및 사회생활에서 느끼는 부담이 컸다. 그러나 직장생활부담은 본인의 연령이 어릴 때, 즉 자녀가 어릴 때 가장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었다. 이는 임정빈과 정혜정(1986)이 경제적인 이유로 취업할 경우 역할갈등이 높다거나, 이기영과 구혜령(1992)의 비자발적인 동기에서 취업한 주부가 시간 및 긴장갈등이 높다고 한 연구결과와 또 노동시간의 양을 역할갈등의 주된 요인으로 보는 많은 선행연구들과 일치하는 것이다.

3. 취업기혼여성이 사용하는 대처방안

생산직 기혼여성들이 취업과 가사노동의 수행에서 오는 노동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개인차원, 가정차원, 그리고 직장과 사회차원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를 살펴 보았다. 우리나라에서 기혼여성의 생산직 취업은 생태체계적인 접근으로 볼 때 대부분 개인의 선택에 의한 것이기 보다는 사회적인 노동수요와 가계의 필요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들이 노동을 지속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들의 노동을 필요로 하는 체계에서 이들의 노동력 마모를 방지할 수 있도록 대처해야 한다.

<표 6>에 생산직 기혼여성이 과중한 노동부담에 대응하면서 사용하는 개인 및 가정차원의 대처방안이 나타나 있다. 먼저 개인차원의 대처방안은 효율적인 수행과 소극적 대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생산직 기혼여성들이 사용하는 개인적인 대처방안 가운데 가사노동이나 해야 할 일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방안의 점수가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방안의 점수보다 높아서, 적극적인 의미의 대처방안을 더 많이

<표 6> 생산직 기혼여성이 사용하는 개인 및 가정차원 대처방안

| 영역 | | 평균* | 표준편차 |
|------|-------------|------|------|
| 개인차원 | 효율적인 수행 | 3.45 | 1.08 |
| | 소극적인 대처 | 3.13 | 0.74 |
| | 개인차원 평균 | 3.24 | 0.63 |
| 가정차원 | 남편의 가사노동 분담 | 2.65 | 0.90 |
| | 가정내 물적자원 이용 | 2.87 | 0.73 |
| | 가정차원 평균 | 2.75 | 0.67 |

* 1-5점의 리커트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대처방안의 사용이 많다.

이용하고 있었다.

가정차원의 대처방안 사용은 전체 평균이 2.75점으로 개인차원의 대처방안 사용점수 3.24점에 비해 낮다. 가정차원의 대처방안 사용은 중간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실질적으로 남편에 의한 가사노동 분담 뿐만 아니라 물적자원의 이용도 미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가정차원의 대처방안 사용이 이렇게 저조한 것은, 가부장제적인 성역할 이데올로기의 영향으로 아직도 가정내 남편의 가사사분담은 시간적으로나 분담빈도로 볼 때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기(이기영 외, 1994; 허경숙, 1994; 이승미, 1994) 때문이다. 또 가정내 물적자원의 이용은 가계로 하여금 금전적인 비용을 부담하게 한다. 그러므로 상대적으로 저소득계층인 생산직 기혼여성 가계에서 이용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취업주부의 시간절약을 위한 내구재나 서비스의 필요도와 사용도가, 주부의 직종이 생산·노무직의 경우, 다른직종에 비해 적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제미경, 1994)에서도 제시되고 있다.

생산직 기혼여성이 이용하고 있는 사회차원 대처방안은 요인분석 결과 3가지 방안으로 나누어 졌다. 모성보호 제도의 이용에는 생리휴가 및 출산전후 휴가, 육아휴가 등과 국민학교 이상 학생의 급식제도 및 방과 후 아동 돌보기 제도 이용 등이고, 탁아시설 지원에는 직장내의 탁아소와 집근처의 이용 가능한 탁아소의 이용, 그리고 직장내의 금융시설 이용

등이다.

〈표 7〉에서 보면, 생산직 기혼여성이 이용하고 있는 사회차원의 대처방안 수준은 매우 저조하다. 모성보호제도는 아예 없거나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막내자녀가 7세 이하인 기혼여성의 경우에도 탁아시설 이용이 저조해서 생산직 기혼여성의 자녀양육을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부족함을 나타낸다. 이는 대구시에서 취업한 기혼여성이 이용할 수 있는 보육시설이 매우 제한되어 있음이²⁾ 그 중요한 이유이다. 사회차원의 대처방안 가운데 가장 이용빈도가 높은 것은 급유시설 및 제도의 이용이었다.

생산직 기혼여성이 이용하는 대처방안을 개인차원과 가정차원, 사회적 차원으로 나누어서 비교해 보았을 때, 사회차원의 이용이 가장 낮고 개인적 차원의 대처방안 이용이 가장 많았다. 이는 생산직 기혼여성이 느끼는 과중한 노동부담의 해소를 위한 방안이 개인차원의 대처방안에만 주로 의존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생산직 기혼여성의 취업이유가 대부분 가정의 경제적인 필요때문이고, 사회적으로는 생산직 노동력 수요에 부응하고 있는 것이지만, 이

들이 취업으로 인해 겪는 어려움은 개인적으로 감당하고 있다. 즉, 가정이나 사회차원에서 생산직기혼여성의 이중노동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대처는 매우 미흡함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므로 가정이나 사회차원 대처방안을 이용할 기회가 없는 생산직 기혼여성의 노동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대처방안 사용과 노동부담과의 관계

Strober와 Weinberg(1980)는 주부가 취업하므로써 감소하게 되는 가사노동시간의 제약을 완화하기 위해 대처방안을 사용한다고 제시한다. 그런데 시간제약을 완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대처방안은 대처방안의 내용에 따라 기혼여성이 노동부담을 더 느낄 수도 있고, 시간제약 뿐만 아니라 노동부담을 완화시켜 줄 수도 있다. 예를들어 취업한 기혼여성이 노동시간의 제약을 완화하기 위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제시된 생활시간 배분의 조정, 즉 수면시간이나 여가시간을 줄이는 대처방안은 사용하면 할수록 오히려 부담을 크게 느끼게 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노동부담과 대처방안 사이의 관계는 노동부담의 객관적 측면인 노동시간과 주관적 노동부담 정도에 따라 달라지리라고 예측할 수 있다. 또 주관적 노동부담 정도와의 관계도 두가지 방향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취업한 기혼여성은 직업노동과 가사노동이라는 과중한 이중노동을 수행하기 위해 어떤 대처방안을 사용할 것이다. 이 경우 대처방안의 사용은 이중노동의 부담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시간의 개념을 고려하여 일정한 조사시점에서 볼 때는 이미 사용해 오고 있는 대처방안들이 현재 느끼는 이중노동의 부담정도에 영향을 줄 것이다.

〈표 8〉에서 노동부담과 대처방안 사용과의 상관관계를 보면, 가사노동시간과 대처방안 사용은 통계적

〈표 7〉 생산직 기혼여성이 이용하는 사회차원의 대처방안

| 영역 | 평균* | 표준편차 |
|------------|----------------|----------------|
| 모성보호제도의 이용 | 0.68(0.77) | 0.69(0.88) |
| 탁아시설 이용 | (1.44) | (1.48) |
| 급유제도의 이용 | 2.57 | 1.19 |
| 사회차원 전체 평균 | 1.21 (1.33) | 0.62 (0.81) |

* 0-4점 리커트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사용빈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은 막내자녀의 연령이 7세 이하인 기혼여성의 이용정도임.

2) 대구시의 1994년도 보육시설 현황을 보면 어린이집은, 공립 22개소, 법인 67개소, 개인은 173개소이며 직장에 어린이집이 있는 경우는 단 2곳에 불과하여, 총424개소이고 놀이방 161개소를 합하여 전체 보육시설에서 보육할 수 있는 아동수는 14,691명 뿐이다(대구광역시, 1995).

으로 유의미 하지는 않으나 전반적으로 가사노동시간이 길 수록 대처방안의 사용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가사노동의 시간제약을 완화하기 위해 대처방안을 사용한다고 한 선행연구(Strober & Weinberg, 1980; Nickols & Fox, 1983; 이승미, 1989; 이연숙 외, 1990)와 일치하는 것이다. 특히 금융제도의 이용은 가사노동 시간과는 부의 상관을 직업노동 시간과는 정의 상관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가사노동시간이 짧고 직업노동시간이 긴 경우는 현금카드나 자동이체제도를 이용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대처방안과 주관적 노동부담과의 상관관계는 대처방안의 종류에 따라, 또 노동부담의 영역에 따라 그 관계의 방향이 달라짐을 알 수 있다. 예를들어, 생산직 기혼여성이 사용하는 대처방안 가운데 개인차원의 대처방안인 소극적 대처는 모든 영역의 노동부담과 $P<.001$ 의 수준에서 정적인 상관을 가지고 있다. 이는 취업기혼여성이 개인적 차원에서 소극적인 대처방안을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노동부담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결과는 전문직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역할갈등과 갈등대처방안의 관계를 제시한 연구에서(이기영과 구혜령, 1992; 전영자, 1992) 갈등수준과 대처방안 사이에 부적의 관계가 존재해서 대처방안을 많이 사용할 수록 갈등의 정도가 낮아진다고 밝힌 결과와는 상반되는 것이다.

이처럼 결과가 상반되는 이유의 하나는 대처방안

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이다. 즉, 취업기혼여성이 사용하는 대처방안은 노동부담을 감소시켜주는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노동부담을 증가시키는 대처방안도 사용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개인차원 대처방안 가운데 소극적 대처가 바로 이런 경우이다. 그러므로 대처전략에 따라 갈등수준과 대처전략간의 관계의 방향이 다르게 나타난다고 하였다(Chung, 1988). 즉, 가족역할의 시간갈등 수준이 높을수록 가정에서의 '수행'전략의 사용은 낮았으나, '표준변화' 전략은 갈등수준과 정적인 관계를 나타낸다고 하여서 대처방안과 갈등의 관계를 한 방향으로 정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막내자녀가 7세 이하인 경우 탁아시설의 이용이 노동부담과 정적인 상관을 나타내고 특히 개인생활 부담과는 $P<.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었다. 이는 어린자녀가 있는 경우, 탁아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기혼여성의 노동부담을 덜어주는 것과 관계가 없고 오히려 노동부담이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탁아소가 멀리 있는 경우 자녀를 탁아소에 데려오고 가는 일이 기혼여성에게 부담이 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기혼여성의 취업배경을 생태체계적 맥락에서 파악하고, 취업에 따르는 문제점 및 문제점

〈표 8〉 대처방안 사용과 노동부담의 상관관계

| 변 수 | 가사노동 시간 | 직업노동 시간 | 개인생활 부담 | 가정생활 부담 | 직장생활 부담 | 사회생활 부담 | 전체 노동부담 |
|-----------|------------|------------|------------|------------|------------|------------|------------|
| 효율적 수행 | .104 | .034 | -.027 | .007 | -.087 | .007 | -.025 |
| 소극적인 대처 | .124 | .092 | .370*** | .325*** | .235*** | .253*** | .400*** |
| 남편의 분담 | .014 | -.064 | -.053 | -.023 | .025 | .091 | .013 |
| 물적자원의 이용 | .029 | -.009 | .010 | .111 | .181* | .075 | .122 |
| 모성보호제도이용 | .050 | -.051 | -.063 | .036 | .090 | .079 | .046 |
| 탁아시설 이용 # | -.001 | .281 | (.367)* | (.197) | (.286) | (-.101) | (.225) |
| 금융제도 이용 | -.127 | .230*** | .111 | .075 | .036 | .355** | .203** |

* $P<.05$ ** $P<.01$ *** $P<.001$

#: ()은 막내자녀연령이 7세 이하인 경우의 상관관계임.

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 역시 생태계적 접근방법을 적용하여 분석하므로써 기혼여성의 취업에 대한 통합적인 관점을 갖고자 하는 일련의 연구 가운데 하나이다. 여기서는 취업한 기혼여성이 감당하는 노동부담 실태와 노동부담에 대처하기 위해 사용하는 대처방안을 분석하였다. 취업기혼여성의 노동부담은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부담을 동시에 파악하여야 하며, 주관적 부담은 생태계적 모델을 적용하여 개인, 가정, 직장 및 사회생활 영역의 부담 정도를 파악하였다. 또 이에 따른 대처방안 역시 취업기혼여성이 개인차원에서 사용하는 대처방안과 가정 및 사회차원의 대처방안으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생산직 기혼여성의 노동부담은 매우 과중하다. 즉, 객관적으로 평일 총 노동시간은 1일 14시간 15분이라는 장시간노동을 하고 있으며 주관적으로는 개인생활 영역에서 가장 큰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그 다음 가정생활 및 사회생활 영역의 순으로 부담을 가지고 있었으나, 직장생활에서의 어려움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다.

둘째, 이들의 노동부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취업목적과 근무시간의 길이이다. 즉 개인적인 선택이라기 보다는 가계의 필요 때문에 취업했다고 생각하고, 근무시간이 길 때 노동부담이 컸다.

셋째, 생산직 기혼여성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대처방안은 개인적 차원의 것들이며, 가정차원의 대처방안이나 사회차원의 대처방안 사용은 매우 저조했다. 특히 개인차원의 대처방안 중 '소극적 대처'는 많이 사용할수록 노동부담을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혼여성의 취업, 특히 저소득계층인 생산직노동에의 취업은 기혼여성 개인의 선택이라기 보다는 가계의 경제적인 필요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이들의 노동부담은 과중하고, 특히 이러한 노동부담에 대처하는 방법이란 주로 개인적으로 감당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와같은 구조는 결국 기혼여성 개인의 노동력 마모와 가정생활의 질적인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다.

취업기혼여성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개인차원의 대처방안은 오히려 주관적 노동부담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혼여성의 노동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가정차원의 대처와 사회차원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가정에서는 가족원 특히 남편의 가사노동 부담이 필수적이며, 사회적으로는 이들이 장시간노동으로 참여할 수 없는 가정 및 사회생활을 보조할 수 있는 제도들의 시행이 필요하다. 즉, 야간이나 휴일에 금융시설이나 관공서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의 확충, 직장내 현금인출기 등을 더 많이 설치하는 일, 나아가 접근처의 탁아시설 및 노인을 돌볼 수 있는 시설의 마련, 또 아픈가족을 돌볼 수 있는 휴가제도의 시행 및 방과후 자녀를 돌보는 시설의 확충 등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 강세영(1995). 산업체 모성보호 및 보육제도 실시현황과 개선방안. 한국노동연구원. 남녀고용평등 심포지움 보고서, 105-139
- 김순영(1992). 1980년대 기혼여성의 취업실태 및 취업구조 변화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시월(1993). 도시빈곤지역 취업기혼여성의 경제활동과 가계소득기여.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애령(1987). 노동자가족의 생계유지와 여성노동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태홍(1993). 여성고용구조의 변화와 과제. 한국여성개발원. 21세기와 여성, 153-183.
- 김혜경·신현옥(1990). 제조업 생산직 기혼여성노동자의 상태와 문제. 여성과 사회. 서울: 창작과 비평사, 282-318.
- 신영수(1991). 여성노동시장의 중장기전망과 과제. 한국노동연구원.
- 어수봉(1991). 노동시장변화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 어수봉(1992). 한국의 노동이동. 한국노동연구원.
- 어수봉(1993). 한국의 여성노동시장. 한국노동연구원.
- 유가효·박혜인·조희금·박충선(1992). 대구지역 생

- 산직 기혼여성의 취업 및 가족생활실태 파악과 대책수립에 관한 연구 2. 대한가정학회지 30(1), 283-309.
- 유가효·박혜인·조희금·박충선(1991). 대구지역 생산직 기혼여성의 취업 및 가족생활실태 파악과 대책수립에 관한 연구 1. 대한가정학회지 29(3), 227-246.
- 이기영(1987). 가사노동의 상품대체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기영·구혜령(1992). 전문직 취업주부의 역할갈등과 갈등대처전략.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0(2), 99-112.
- 이마숙(1995). 부인의 취업유무와 직종에 따른 부부의 가사 및 자녀양육 수행에 관한 연구. 서울대박사학위논문.
- 이승미(1989). 주부가 지각한 시간제약과 가사노동의 수행방안.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연숙·이순형·유가효·조제순(1991). 맞벌이 가정의 생활실태와 문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 이현아(1994). 남편의 생활시간구조와 가정생활문제에 관한 夫婦의 지각-장시간 노동의 영향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임정빈·정혜정(1986). 취업주부의 역할갈등과 결혼만족도에 관한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4(1), 71-93.
- 임혜경(1993). 취업주부의 직업-가정갈등, 가사노동사회화, 그리고 가정관리만족간의 인과관계.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장윤옥(1992). 교직주부에 있어서 가족생활주기와 가사노동가치 인식이 시간제약 지각과 역할갈등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0(3), 325-345.
- 전영자(1992). 전문직 취업주부의 역할갈등, 대처방안 및 심리적 디스트레스 간의 관계.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정진화(1991).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와 취업구조. 여성연구 9(3), 77-108.
- 제미경(1994). 취업주부의 시간절약재화 및 서비스요구와 소비행동.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조은(1996). 절반의 경험 절반의 목소리. 서울 : 미래미디어
- 조형(1991). 탁아제도: 국가개입과 민간시장. 탁아제도와 미래의 어린이 양육을 걱정하는 모임. 우리 아이들의 육아현실과 미래. 서울: 한울, 57-70.
- 조희금(1993). 생산직 기혼여성의 생활시간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1(3), 101-112.
- 조희금(1998). 기혼여성의 생산직노동 참여배경과 노동부담. 대한가정학회지 36(1) 출판예정.
- 천현숙(1987). 공단지역 기혼여성노동의 특성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경미(1991). 취업주부의 시간사용과 영향요인. 한국가정관리학회지 9(2), 171-190.
- 허경옥(1994). 부의 자녀 양육에의 참여시간 결정요인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2(3), 63-70.
- 헤르네스, 헬가 마리아(1989). 女性과 福祉國家: 私的依存에서 公적존으로의 변화. 앤 쇼스틱 사쑤 편집. 여성과 국가-국가정책과 여성의 공사업역의 변화. 한국여성개발원.
- Abdel-Ghany, M.S. & Nickols S.Y.(1983). "Husband/Wife Differentials in Household Work Time: The Case of Dual Earner Families". *HERJ* 12 (3).
- Adams, B.N.(1980). *The Family : A Sociological Interpretation*. Chicago: Rand McNally Co.
- Bielby, D.D. & Bielby W.T.(1988). "She Works Hard for the Money: Household Responsibilities and the Allocation of Work Effort". *AJS*. 93(5), 1031-1059.
- Bird, G.A., Bird, G.W. & Scruggs, M.(1983). Role-Management Strategies used by husbands and Wives in Two-earner Families. *HERJ* 12.
- Bird, G.W. & Ford, R.(1985). "Sources of Role Strain Among Dual -Career Couples". *HERJ* 14(2), 187-194
- Bolger, Niall, Anita DeLongis, Ronald C. Kessler & Elaine Wethington(1989). "The Contagion of Stress Across Multiple Rol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1, 175-183.

- Chung, yunsuk Lee(1988). Time management strategy, job satisfaction, research productivity, and life satisfaction of university faculty. Iowa State Uni. Dissertation.
- Elman, M.T., & Gilbert, L.A.(1984). Coping Strategies for Role Conflict in Married Professional Women with Children. *Family Relations* 33.
- Googins, B.K.(1991). *Work/Family Conflicts: Private Lives--Public Reponse*. New York.
- Hall, D.T.(1972). A Model of Coping with Role Conflict : The Role Behavior of College Educated Women.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17.
- Kahn, R.L., Wolfe, D.M., Quinn, R., Snook, J.D. & Rosenthal, R.A.(1964). *Organizational Stress*. New York : Wiley.
- Katz, M.H. & Piotrkowski C.S.(1983). Correlates of Family Role Strain Among Employed Black Women. *Family Relations* 32, 331-339.
- Keith, P. M. & Schafer R.(1980). Role Strain and Depression in Two-Job Families. *Family Relations* 29, 483-488.
- Nichols, Laurie Stenberg, Nancy Wanamaker & Nancy Deringer(1995). "Needs and Priorities in Balancing Paid and Family Work: A Gender and Social Class Analysis". *Family and Consumer Sciences Research Journal*, 24(1), 71-86.
- Olson, P.N., J.J. Ponzetti, & G.I. Olson(1989). "Time Demands on Families : Is there a Bottom Line?". *Life Styles: Family and Economic Issues* 10(4).
- Seyler, Dlanl, Pamela A. Monroe & James C. Garand (1995). "Balancing Work and Family: The Role of Employer-Supported Child Care Benefits". *Journal of Family Issues* 16(2), 170-193.
- Shelton, B.A. & Firestone J.(1988). "Time Constraints on Men and Women: Linking Household Labor to paid labor". *SSR* 72(2), 102-105.
- Strober, M.H. & Weinberg C.B.(1980). "Strategies Used by Working and Non-Working Wives to Reduce Time Pressures". *JCR* 6.
- Verbrugge, Lois M.,(1987). "Role Responsibilities, Role Burdens, and Physical Health". Crosby, Faye J.,(ed.). *Spouse, Parent, Worker-on Gender and Multiple Roles*-. Yale University, 154-166.
- Voydanoff, Patricia & Robert F. Kelly(1984). "Determinants Work-related Family Problems Among Employed Parent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881-892.
- Voydanoff, Patricia(1988). "Work Role Characteristics, Family Structure Demands, and Work/Family Conflict".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0, 749-761.
- Weigel, Daniel J., Randy R. Weigel, Peggy S. Berger & Robert DelCampo(1995), "Work-Family Conflict and the Quality of Family Life: Specifying Linking Mechanisms", *Family and Consumer Sciences Research Journal* 24(1), 5-28.